

# 엄원상 복귀전 골...광주FC 귀중한 첫 승점

K리그1 울산과 1-1 무승부  
4경기 만에 첫골...3연패 탈출  
K리그2 전남과 안양과 1-1  
5경기 연속 무패행진

'특급 스피드'를 더한 광주FC가 4경기 만에 K리그1 승점을 신고했다. 광주는 지난 3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울산현대와의 14라운드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자책골 실점으로 아쉽게 승리는 놓쳤지만, 광주는 '우승후보' 울산을 상대로 3연패에서 탈출하면서 2020시즌의 시동을 걸게 됐다. 부상에서 돌아온 '엄살라' 엄원상이 난세의 영웅이 됐다. 엄원상은 개막 후 4경기 만에 치른 K리그1 데뷔전이던 부산 북귀전에서 11분 만에 골을 만들었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재치 있는 플레이가 돋보이는 이집트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를 탄 애칭 '엄살라'다운 득점 장면이었다. 전반 11분 중앙에서 공을 잡은 엄원상이 빠른 스피드로 울산 진영으로 침투한 뒤 페널티박스 안으로 진입한 펠리페에게 공을 넘겨줬다. 하지만 수비수에 둘러싸인 펠리페가 제대로 슈팅을 하지 못하면서 공이 흘러나왔고, 이를 잡은 엄원상이 오른발 슈팅으로 울산의 골대를 갈랐다.

엄원상의 시즌 1호골이자 광주의 시즌 첫 골이었다. 전반 21분 울산 주니오의 몸에 맞아 굴절된 공이 광주 수비수 이한도를 스쳐 광주 골대로 들어가면서 아쉽게 자책골이 기록됐다. 승리는 놓쳤지만 광주는 막강 울산을 상대로 시즌 첫 승점을 만들었다. 엄원상이라는 새로운 엔진이 등장하면서 광주의 6월에도 희망이 생겼다. 빠른 스피드로 첫 골을 만든 엄원상은 후반 3분에도 울산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질주를 선보였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엄원상은 울산 불투이스를 제치고 그대로 드리블을 하면서 진격해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다. 전반 18분에는 울산 골키퍼 조현우를 움직이게 한 위력적인 슈팅도 날리는 등 환승 무르익은 플레이로 광주의 승통을 트이게 했다. 박진섭 감독은 "이거지는 못했어도 광주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 같아 희망을 봤다"며 울산전 무승부를 평가했다. 특히 엄원상에 대해 "골도 넣어줬고 22세 선수(의무 출전) 활용 면에서도 원상이 좋은 모습 보여주면 활용 폭이 넓을 것 같다"며 "스피드가 있는 선수라서 상대가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윌리안과 김정환도 들어오면 공격이 더 좋아질 것 같다"고 넓어진 공격 옵션에 관해 설명했다. 광주 첫 득점 주인공 엄원상은 '형'들에게 공을 돌렸다.

엄원상은 "형들과 감독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자신 있게 하면 찬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을 뿐인데 운 좋게 상황이 맞아떨어졌다"며 "재활하면서 훈련 기간이 짧아 걱정했는데 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형들이 워낙 잘 도와줬다. 장수형, 정수형 등이 많이 해주어서 도움이 됐다"며 "(스피드가) 내 장점인데 최대한 잘 살려보려고 했다. 자신감이 없는 상태였는데 옆에서 형들이 말 많이 해주고 도와줬다. 내가 막내라인이니까 오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하면 된다. 형들을 믿고 가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안양에서 FC안양과 맞붙은 전남드래곤즈는 극적인 페널티킥으로 5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렸다. 전남은 지난 30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5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28분 안양 아코스티에게 헤딩 선제골을 내줬다. 전반전 5개의 슈팅을 기록한 전남은 후반에도 12개의 슈팅을 퍼부었다. 하지만 끝내 골대를 가르지 못하면서 패색이 짙어가던 후반 45분, 윌리안이 페널티지역에서 안양 유종현과 충돌하면서 넘어졌다.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이 선언되면서 윌리안이 직접 키커로 나섰다. 이어 윌리안은 오른발로 팀의 5경기 연속 무패를 장식하는 동점골을 넣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엄원상(왼쪽)이 지난 3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0 K리그1 울산현대와의 4라운드 경기에서 울산 불투이스를 따돌리고 드리블 질주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 6월 유럽축구가 돌아온다...EPL 17일 재개

이탈리아 세리에A는 20일  
프리메라리가도 복귀 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유럽축구가 6월에 속속 그라운드로 돌아온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는 오는 17일(이하 현지시간) 다시 시작한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28일 "리그 이해당사자들이 잠정적으로 17일에 2019-2020시즌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라바오컵(리그컵) 결승전 영향으로 연기된 애스턴 빌라-세필드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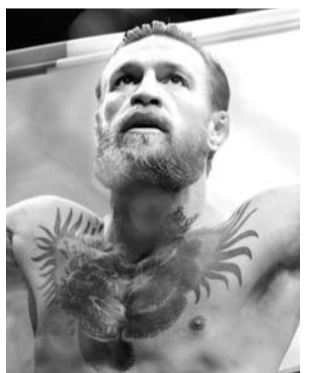
티-아스널 경기가 수요일인 17일 열릴 것"이라며 "이후 19일부터 모든 팀의 경기가 개최된다"고 덧붙였다. 모든 경기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게 된다. 경기 개시 시간도 발표했다. 주중·주말 모두 한 경기 이상은 개최되며, 토·일요일의 경우 경기 시간이 겹치지 않게 킥오프 시간을 네 개로 나눴다. 이에 대해 프리미어리그의 리처드 마스터스 최고 경영자(CEO)는 "아쉽게도 팬들은 경기장에 갈 수 없지만, 남은 92경기 모두를 볼 수 있도록 했다"면서 "집에서 가능한 한 많은 팬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프리미어리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시즌 92

경기를 남겨둔 채 3월 13일 중단됐다. 시즌이 중단되기 전 9경기를 남겨둔 리버풀(승점 82·27승 1무 1패)이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맨체스터 시티(승점 57·18승 3무 7패)에 승점이 25점이나 앞서며 선두를 질주 중이었다. 리버풀은 9경기에서 2승만 더하면 1989-1990시즌 이후 30년 만에 잉글랜드 1부리그 우승을 차지한다. 프리미어리그에 이어 이탈리아 프로축구 최상위 리그인 세리에A는 오는 20일 재개한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빈첸초 스파다포라 이탈리아 체육부 장관은 "이탈리아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축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며 "이탈리아축구협회(FIGC)는 플랜 B, C까지

갖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일에 시즌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FIGC, 이탈리아축구선수협회, 세리에A 등과 화상회의를 하고 나서였다. 세리에A는 3월 9일 사수올로-브레시아 경기를 마지막으로 시즌이 중단된 상태다. FA컵 대회인 코파 이탈리아의 준결승 2차전은 세리에A 재개보다 1주 앞선 6월 13~14일 치르고, 결승은 6월 17일 개최될 전망이다. 유럽 프로축구 5대 리그 중에서는 독일 분데스리가가 지난 16일에 가장 먼저 시즌을 재개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도 6월 8일부터는 시즌을 재개해도 된다는 정부 허가를 받고 그라운드 복귀를 준비 중이다. 최근 프리메라리가의 하비에르 타바스 회장은 6월 11일 레알 베티스-세비야의 경기로 시즌을 다시 시작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프랑스 리그1은 이번 시즌을 중단된 채로 끝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 UFC 간판스타 맥그리거 실바의 슈퍼파이트 제안 수락

세계 최대 종합 격투기단체 UFC의 간판스타 코너 맥그리거(32·아일랜드·사진)가 앤드슨 실바(45·브라질)의 도전을 수락했다. 최근 미국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실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맥그리거에게 체급을 뛰어넘는 슈퍼파이트를 제안했다. 실바는 "나는 위대한 선수를 엄청나게 존경한다. 코너와 내가 슈퍼파이트를 한다면 스포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 중 누구도 팬들에게 아무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이어 "나는 UFC와 격투기 팬들이 이러한 위대한 격투기 장관을 보길 원한다고 믿는다. 그(맥그리거)를 상대로 내 격투기 기술을 테스트한다면 환상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그리거는 자신의 트위터에 그와 실바의 사진을 첨부한 뒤 "난 수락한다"며 "난 누구도 두렵지 않다. 올라가서 어떤 체급에서든 싸우겠다"고 바로 응답했다. 실바는 이달 초에 수술을 받았다. 당장 육타근 복귀는 쉽지 않다. 실바는 잔여 UFC 계약을 소진할 대상으로 고만 고만한 상대가 아니라 UFC를 상징하는 맥그리거를 지목했고, 맥그리거는 이에 화끈하게 응답했다. 전 미들급 챔피언 실바는 UFC 역사상 최장기간 타이틀 방어, 최다 타이틀 방어 등 숏한 기록을 써 내려간 종합격투기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전 페더급-라이트급 챔피언 맥그리거는 웰터급보다 더 높은 체급에서는 아직 싸워본 적이 없다. /연합뉴스



## 광주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지원사업 3년 연속 우수 최근 1년간 운동선수 수입 1위 페더러...2위 호날두

광주장애인체육회가 2019년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사·도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했으며, 사업, 현장, 행정, 정책반영, 위원회 등 5개 분야별 점수를 매겨 이를 합산했다. 광주장애인체육회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우수 사·도에 뽑혔다. <사진> 광주장애인체육회는 공공형스포츠클럽과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 서비스 사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두 사업은 전국 최초로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가 진행했다. 광주장애인체육회는 '2019년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 우수 운영사례' 단체상 부문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장애인생활체육 용품지원 사업,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 장애인 거점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등이 최우수상의 밑거름이 됐다. 서용규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새로운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2019년 한 해 현장에서



고생한 직원과 지도자들의 노력이 성과를 맺은 것 같다"며 "광주시의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을 전국 모범 사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39·스위스)가 최근 1년 사이에 전 세계 모든 종목에 통틀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운동선수로 조사됐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30일(한국시간) 발표한 2020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운동선수 100명 순위를 보면 페더러는 최근 12개월 사이에 1억630만달러(약 1316억원)의 수입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포브스는 1년간 수입을 급여와 상금 부문, 후원 부문으로 나눠 조사했는데 페더러는 경기 출전 상금으로 630만달러를 받았고, 각종 후원 계약으로 1억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1990년 시작된 이 조사에서 페더러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또 테니스 선수가 1위가 된 것도 올해가 최초다. 페더러는 지난해 이 조사에서 5위였고, 역대 최고 순위는 2013년 2위였다. 지난해 1억2700만달러로 1위였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33·아르헨티나)는 올해 1억400만달

러를 기록, 3위로 밀렸다. 올해 2위는 지난해에도 2위였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포르투갈)로 1억500만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다. 네이마르(28·브라질)가 9550만달러로 4위에 올라 축구 선수들이 2~4위를 휩쓸었고, 미국프로농구(NBA)의 간판스타 르브론 제임스(36·미국)가 8820만달러로 5위에 자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3월을 전후해 전 세계 스포츠가 모두 중단된 탓에 상위 100명의 수입 총액은 36억달러를 기록, 지난해보다 평균 9% 감소했다. 테니스 종목의 오사카 나옴이(23·일본)가 3740만달러를 받아 전체 29위로 여자 선수와 아시아 국적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종목별로는 NBA 선수가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프로풋볼(NFL) 선수 31명, 축구 선수 14명, 테니스 6명 순이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2관 언더워터           |
| 3관 그림, 톰보이        |
| 4관 더 플랫폼          |
| 5관 프리즌 이스케이프      |
| 9관 위대한 쇼맨, 미스비헤이버 |
| 7관 씨네캐슬           |
| 8관 씨네캐슬           |

날씨의 아이, 하이쿠!! 또 다른 도전 레미: 집 없는 아이 오퍼나지: 비밀의계단  
아홉 스님, 초미의 관심사 호텔 레이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최대주 感應動通  
2020. 5.21.(목) ~ 6.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 포커스  
선우정아 콘서트  
2020. 6.14.(일) PM 5: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포커스4  
판소리 1인극 <방탄철기방>  
2020. 7. 3.(금) ~ 4.(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